#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나타난 文法形態에 대한 硏究*

鄭在永**


## 요 약

이 연구는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나타나는 문법형태들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鷄林類事에는 釋讀口訣이나 鄕歌, 吏讀 등의 資料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나 어구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두와 향가, 석독구결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법형태들이 보인다.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나타나는 문법형태들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기 위해서 먼저 鷄林類事의 異本들에 나타나는 高麗方言 표기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는 한자어를 비롯하여 고유어로 표기된 名詞들이 많이 보인다. 파생명사나 복합명사뿐 아니라, 'ㄱ' 曲用語와 'ㅎ' 곡용어, '아ᄉᆞ' 등도 나타난다. 다른 對譯語彙集들과는 달리, '木曰南記(남기)', '犬曰家稀(가히)', '土曰轄希(홁기)' 등과 같이 주격조사가 통합된 어형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 자료의 특징이다. 이 자료에 대격조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호격 조사 '-아'가 반영된 어형은 나타난다. 動詞의 경우는 부동사형으로 제시되는 것도 있지만 동사의 어간형이 단독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은 『朝鮮館譯語』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鷄林類事에는 명


* 이 논문은 鷄林類事 900周年 紀念 國際學術大會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질문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韓國技術敎育大學校 敎授

령법어미가 '-囉(-라)'와 '-受勢', '-少時' 등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중 '-受勢', '-少時'는 다른 고대국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중세국어의 '-쇼셔'와 같은 것이다. 古代國語에는 동명사어미 '-ㄴ'과 '-ㄹ'이 생산적으로 쓰이는데, 이 자료에서도 '-ㄴ'과 '-ㄹ' 동명사어미는 많이 나타난다. 형용사에 동명사어미 '-ㄴ'이 통합한 어형으로 제시된 例 중에는 名詞文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부정구문에서는 부정부사 '安理'와 '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중세국어의 '아니'와 '몯'에 대응되는 것이다. '安理'는 용언의 앞뒤에 오는 용례가 나타난다. 특히, '飢曰 擺咱安理(배ᄎᆞ 아니)'는 그동안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面醜曰 梳翅沒 朝勳(나치 몯 됴ᄒᆞᆫ)'에 나타나는 '沒'은 부정부사 '몯'에 대응하는 것이다. '몯' 부정 구문은 鄕歌와 吏讀, 釋讀口訣 등에서는 볼 수 없는 구문이다. 향가와 이두, 석독구결 등에 나타나지 않는 문법 형태나 부정 구문의 유형이 鷄林類事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국어 문법사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계림유사는 北宋의 孫穆이 高麗의 단어와 어구들을 채록하여 開封音이 많이 반영된 漢字로 對譯 表記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에는 부분적으로 당대의 借字表記 資料도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도 계림유사는 다른 고대국어 자료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나 향가와 이두 등에서는 볼 수 없는 當代의 우리말 자료가 많다는 점에서도 이 자료가 가지는 가치가 크다.

*핵심어: 鷄林類事, 古代國語, 文法形態, 借字表記, 鷄林類事 異本

## 1. 序論

鷄林類事는 北宋 孫穆이 편찬한 일종의 견문록이며, 對譯語集이다. 손목이 1103년(고려 숙종 8년)에 서장관으로 고려에 와서 당시의 고려의 朝制, 土風, 口宣, 刻石 등과 함께 고려 시대의 어휘와 어구를 채록하여 편찬한 책이다. 현재 전하는 『鷄林類事』에 실려 있는 어휘 부

분은 그 당시 우리말 단어나 어구를 漢字音이나 뜻을 빌려 적은 것이기 때문에 고려 시대의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국 北宋代의 漢字音을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나타나는 문법형태들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축적된 高麗時代의 釋讀口訣을 포함한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硏究를 바탕으로 하여 『鷄林類事』에 나타나는 단어와 어구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11세기 말이나 12세기 초의 국어 문법형태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1] 鷄林類事의 高麗方言 자료가 자료의 성격상 석독구결과 같은 좋은 文法史 자료는 아니지만, 12세기 초에 중국인에 의해 採錄된 高麗의 단어와 어구들을 통하여 그 당시의 문법형태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釋讀口訣이나 鄕歌, 吏讀 資料 등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단어나 어형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자료에는 이두와 향가, 석독구결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문법형태들이 보인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高麗方言에 나타나는 문법형태들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기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鷄林類事의 異本들에 나타나는 高麗方言 표기의 성격과 특징을 살필 것이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에서는 명사의 형태론과 조사, 동사의 형태론과 語尾, 부정 구문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359항 정도[2]의 단어나 어구를 표기한 자료를 통해서도 비교적 많은 문법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시대의 다른 借字表記 資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문법형태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이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1) 鷄林類事에 나타난 文法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李承旭(1973)에서 이미 한 번 다루어진 바가 있다.

2) 陳泰夏(1974)에서는 359항으로, 姜信沆(1980)에서는 355항으로 정리된 바 있다.

## 2. 鷄林類事의 諸異本과 高麗方言 表記의 特徵

### 2.1. 鷄林類事의 諸異本

高柄翊(1955)은, 王應麟의 『玉海』에 보이는 "鷄林類事三卷崇寧初 孫穆撰敍土風朝制方言附 口宣刻石等文"[3] 등에 근거하여 『鷄林類事』의 編纂年代와 鷄林類事의 原形態를 밝힌 바 있다. 송대의 『중흥관각서목』과 『수초당서목』에도 『鷄林類事』가 단행본으로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이 있다. 陶宗儀가 지은 『說郛』에 『鷄林類事』의 일부가 節錄된 바 있고, 그 후에 단행본 『鷄林類事』는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鷄林類事의 내용은 『說郛』 외에도 중국의 총서인 『五朝小說』과 『五朝小說大觀』 등과 『古今圖書集成』, 조선 정조 때 韓致奫이 지은 『海東繹史』 등에 실려 전한다. 현존하는 鷄林類事의 이본은 약 20종이다. 이 중 가장 오래된 古本은 홍콩대학 馮平山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 이 說郛本은 명나라 嘉靖年間에 筆寫된 책이다. 이것과 같은 종류의 책이 臺灣國立中央圖書館에도 있다. 이들 중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림유사의 異本은 다음과 같다.[4]

홍콩대학 馮平山 圖書館 所藏本 明鈔本 說郛
臺灣國立中央圖書館本 明鈔本 說郛
明鈔本 說郛(涵芬樓校印 1927, 上海) 所收
順治板 說郛(1647년, 順治 4) 所收
欽定四庫全書 說郛

---

3) 『玉海』에 보이는 이 기록이 靑莊館全書 卷60, 盎葉記 卷7과 五洲衍文長箋散稿 卷50 史籍類下에도 있다는 사실을 李基文(1968: 206)에서 밝힌 바 있다.
4) 鷄林類事의 異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陳泰夏(1974)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다. 계림유사의 異本들 중 陳泰夏(1974)에 6종의 이본이 영인된 바 있으며 姜信沆(1980)에도 겹치는 것이 있긴 하지만 3종의 異本이 영인된 바 있다.

五朝小說(日本內閣文庫本)
『五朝小說大觀』(上海掃葉山房刊 1926년) 所收
『古今圖書集成』(方言部分)
『海東繹史』 卷28
民國板 說郛

이 외에 『大東韻府群玉』(1588년)에도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이 33곳에서 40 語項이 인용되고 있다.[5]

현재 전하는 『鷄林類事』의 내용 체재는 각 판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설부본을 중심으로 『鷄林類事』의 내용 체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사 부분의 체재는 각 이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제와 토풍의 내용이 뒤섞여 있고, 고려 시대 어휘나 어구의 배열도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方言'이라고 부제를 달고 '天曰漢捺'부터 '淺曰眼低'까지 기록되어 있다.[6] 현재 전하는 鷄林類事에 실려 있는 高麗方言들은 각 異本들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高麗方言의 풀이항에 사용된 한자의 차이뿐 아니라 항목의 구절을 다르게 끊은 것도 있다. (1)이 그것이다. 陳泰夏(1974)와 姜信沆(1980)도 이런 점에 유의하여 高麗方言의 정본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1) ㄱ. 有客曰孫集移室 延客入曰屋裏坐少時
ㄴ. 下簾曰箔恥具囉

(1ㄱ)은 각 사본과 판본에 따라 '有客曰孫集移室 延客入曰屋裏坐少

5) 『大東韻府群玉』에는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이 인용되고 있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李基文(1968: 208-213)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이 책에 수록된 고려 시대 어휘나 어구는 천문, 지리, 時令, 花木, 鳥獸, 蟲魚, 器用, 인물, 人事, 신체, 의복, 안색, 珍寶, 음식, 文史, 數目, 方隅, 기타 등 18 항목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時'로 나타나는 것과(明鈔本說郛) '有客曰孫集移室延 客入曰屋裏坐少時'로 나타나는 것이(順治板 說郛, 『五朝小說大觀』[上海掃葉山房刊, 1926년]) 있는데 내용상 전자와 같이 구절이 끊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1ㄴ)은 明鈔本說郛나 民國板 說郛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발 티고라' 정도로 해독할 수 있는 것이다. 明鈔本說郛나 民國板 등에 나타나는 (1ㄴ)의 '下簾曰箔恥具囉'가 다른 異本들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른 이본 즉, 順治板 說郛에는 '下 簾箔 耻曰囉'로 나타나 이것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지도 모르게 되었고, 『五朝小說大觀』에도 '下曰簾箔 耻曰囉'로 나타난다. 물론 '下簾曰箔恥具囉'이 정확한 것이다. 다른 자료들은 후대에 전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恥'가 다른 이본에서는 '耻'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각 異本들마다 한자 표기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鷄林類事에 나타나는 高麗方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異本 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밝혀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은, 당시의 한자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려시대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서 더욱더 공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2. 鷄林類事 高麗方言 表記의 特徵

鷄林類事에 採錄되어 있는 高麗方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漢字로 표기되어 있는 자료의 성격이나 특징을 정확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1103년에 北宋의 孫穆이 開封音이 많이 반영된 漢字로 당시 고려의 단어와 어구들을 表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어 항목을 漢字로 對譯表記한 풀이항 중에는 단순하게 중국의 한자음만으로는 해독할 수 없는 자료도 있다는 것이다. 對譯表記된 高麗方言 중에는 11세기 말이나 12세기 초에 고려에

서 사용하던 문자언어 자료의 흔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 중에는 당시의 借字表記法을 반영한 표기도 있다. 지금까지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을 연구하면서 연구자들은 이런 점을 주목해 왔다. 손목이 고려 방언을 채록한 방법과 태도를 비롯하여 記寫者의 문제 등도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 것 중에는 먼저 李基文(1968: 213-219)을 들 수 있다. 李基文은, 손목이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을 채록한 방법이나 태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손목이 고려방언을 기사하는 데 당시 현실음에 가장 가까운 한자를 선택하되, 중국어 단어와 의미상 상통할 수 있는 한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對譯表記로 기록된 한자 중에는 表音的 기능 외에 表意性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직접 구어를 듣고 採錄한 것 외에 문자언어(한문) 또는 그 영향을 받은 어휘요소들을 採錄한 것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즉, 李基文(1968)은 계림유사에도 차자표기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金完鎭(1991)에서도 계림유사에는 高麗人의 書寫 慣習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 한 바 있다.[7] 李丞宰(1996)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男兒曰丫姐 亦曰同婆記', '女兒曰寶姐 亦曰古召育曹兒', '雞曰喙[音達](查字典無此字乃朝鮮土語)', '走曰連音打 <民>速行打', '肥曰鹽骨眞 亦曰鹽骨易成' 등을 대상으로 하여 鷄林類事와 借字表記 자료의 관계를 논의한 바 있다.[8]

鷄林類事에 채록된 高麗方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가지는 성격과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7) 이 외에도 金完鎭(1991)과 權仁瀚(1991)은 계림유사의 高麗方言이 聲調가 반영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8) 權在善(1975), 朴喜淑(1988), 姜憲圭(1994) 등도 차자표기가 부분적으로는 고려방언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방언에 나타난 단어를 해석한 것이다.

첫째, 鷄林類事의 高麗方言 자료가 12세기 초에 北宋의 孫穆이 高麗의 단어와 어구를 채록하여 만든 對譯語 자료라는 점이다. 이 사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계림유사의 고려방언은 12세기 초의 宋代音으로 기록된 譯音 자료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국어의 음운을 재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2세기 초의 중국(북송)의 音韻史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漢字로 對譯表記한 풀이항 중에는 단순하게 中國의 漢字音만으로는 해독할 수 없는 자료도 있다. 對譯表記된 高麗方言 중에는 11세기 말이나 12세기 초에 고려에서 사용하던 文字言語 자료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는 漢字語뿐만 아니라 당시의 借字表記法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자료를 해독하지 않으면 鷄林類事의 고려방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訓讀字와 音讀字뿐만 아니라 訓假字와 音假字 등이 그대로 다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계림유사의 고려 방언에는 漢字語가 나타난다. '鬼曰幾心'과 같이 충실하게 한자어를 음사한 자료도 있는 반면에 제시어와 풀이항이 같은 한자로 표기된 것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2)와 같은 용례들이다. 金完鎭(1991)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東西南北同'이나 '江曰江' 등과는 달리 '春夏秋冬同'을 비롯하여 (2)와 같은 자료도 존재한다.

(2) ㄱ. 田曰田, 海曰海, 溪曰溪, 泉曰泉, 鹿曰鹿, 毛曰毛, 角曰角, 蛇曰蛇, 蠅曰蠅, 人曰人
主曰主, 心曰心音尋, 絲曰絲, 袍曰袍, 裙曰裙, 車曰車, 林曰林, 鞭曰鞭, 轡曰轡
ㄴ. 立曰立

(2)는 제시어와 같은 한자로 高麗方言의 對譯語를 기록한 것이다. 동 시대의 다른 차자표기 자료에서는 訓讀하라는 표시를(예를 들면 末

音添記法 등) 사용하거나 하지만 이 자료에는 그런 표기법이 보이지 않는다. (2)와 같이 단어들을 그대로 당시의 고려인들이 한자어로 인식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와 같은 것들은 당시의 고려인들이 한문이나 차자표기의 문자생활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채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9]

## 3. 名詞의 形態論과 助詞

3.1.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는 名詞가 많이 나타난다. 계림유사는 宋의 孫穆이 1103년에 奉仕高麗國信書狀官으로 고려에 와서 당시 고려의 단어와 어구들을 채록하여 開封音이 많이 반영된 漢字로 對譯表記한 자료집이다. 11세기말과 12세기 초의 우리말이 반영되어 있는 독특한 자료이다.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나 향가와 이두에서는 볼 수 없는 당시의 우리말 자료가 많다는 점에서도 이 자료가 가지는 가치가 크다.

이 자료에는 한자어를 비롯하여 고유어로 표기된 명사들도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파생명사와 복합명사 그리고 15세기 국어에서 曲用語로 나타나는 예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로 한다. '-ㅁ' 파생명사부터 먼저 살펴보자.

(3) ㄱ. 畵曰乞林(그림), 行曰欺臨(거름)[10]

9) 고려시대 이전에도 물명 등을 우리말로 서로 통하여 이해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三國遺事 권4 17장에 보이는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絶" 등이 대표적인 기록이다. 실제로 梁職貢圖에 실려있는 <百濟國史>에는 당시의 백제어를 대역표기한 자료가 몇 개 나타난다.

10) ( )에 제시한 한글 표기는 기록된 당시의 한자음에 충실하게 正音으로 표

ㄴ. 笑曰胡臨 哭曰胡住

(3ㄱ)을 명사형어미가 통합한 어형으로 파악한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파생명사로 보는 것이 좋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미 밝혀졌듯이 (3ㄴ)의 '笑曰胡臨, 哭曰胡住' 두 항목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으로 笑曰胡住(우ᅀᅳ-/웃-) 哭曰胡臨(우름)의 誤記로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3ㄴ)의 '哭曰胡臨(우름)'도 畵曰乞林(그림)이나 行曰欺臨(거름)과 같은 파생명사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에 통합되어 있는 '-(으)ㅁ'을 동명사형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대국어 단계에는 동명사어미로 '-ㄴ'이나 '-ㄹ'이 생산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명사형어미 '-옴/움'이 鄕歌나 釋讀口訣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명사형어미 '-옴/움'은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音讀口訣 자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예문 (4)는 중세국어에서 曲用語로 나타나는 것이다. 계림유사에서도 곡용어로 나타난다.

(4) ㄱ. 木曰南記(남기)
ㄴ. 弟曰了兒(아ᅀᆞ) ㅣ兒

(4ㄱ)의 '南記'는 주격조사가 통합한 '남기'로 'ㄱ' 곡용어이다. (4ㄴ)은 大東韻府群玉에서는 '阿兒(東人方言以弟爲--)'로 나타난다.[11] 이 어형은 중세어의 단독형 '아ᅀᆞ'(弟)와 일치한다. 鷄林類事에는 鄕藥救急方 등과는 단독형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말음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

기하기로 한다. 정확한 한자음의 음성 전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대응되는 고려방언이 15세기의 어형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15세기의 正音 표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동일.

11) 朝鮮館譯語에는 "弟 阿自"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계림유사에는 '명사 # 명사' 또는 '명사 # 명사'의 구조의 복합명사가 다 나타나는데 이 경우 속격표지가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공존한다.

(5) ㄱ. 裩曰安海珂背
ㄴ. 苧布曰毛施背, 裩曰安海珂背, 柴曰孛南木(블나모 또는 *블나목)
ㄷ. 松曰鮓子南(잣나모), 剪刀曰割子蓋(ᄀᆞᆯ개 > ᄀᆞᆯ애) 斧曰烏子蓋

(5ㄱ)의 '裩曰安海珂背'는 '袴曰珂背(ᄀᆞᄇᆡ)'를 고려하면 '명사 # 명사'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속격의 '-ㅅ'이 나타나지 않는다. (5ㄴ)은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5ㄷ)과는 차이를 보인다. 松曰鮓子南(잣나모)는 'ㅅ'이 개제된 합성명사다. 剪刀曰割子蓋(ᄀᆞᆯ개 > ᄀᆞᆯ애)와 '斧曰烏子蓋'도 어원적으로는 비슷한 구성을 보이지만 자신이 없다. '斧曰烏子蓋'에[12] 대해 이기문(1968)은 日母에 속하는 자는 아니지만 子가 末音 /ㅅ/을 나타낸다고 보고, 각주부분에서 이것이 三國史記 地理志 本高句麗地名에 보이는 "於斯內縣 一云斧壤"에 나타나는 고구려 어휘 '於斯'(斧)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旦曰阿慘', '午曰捻宰', '前曰訖載', '昨日曰訖載', '今日曰烏捺', '明日曰轄載', '後日曰母魯' 등이다.[참조: 暮曰占捺惑言占沒] 이 중 '昨日曰訖載'이 大東韻府群玉에는 "高麗方言昨日曰於載"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大東韻府群玉에 나타나는 '昨日曰於載'는 15세기의 '어제'와 같은 것이다. 鷄林類事의 후대 간본이나 사본들에는 이들이 만들어질 당시의 언어 현상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明鈔本說郛에 나타나는 '前曰訖載'도 다른 이본에는 '前曰記載'로 나타난다.

12) 方鍾鉉(1955)은 이것을 '오지개'로 해독한 바 있다.

3.2. 鷄林類事의 고려방언은 대부분이 어휘 자료이고, 어구나 문장 단위의 자료도 드물지만 있다. 조사가 실현될 환경에서도 대격조사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격조사 '-이'는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어로 제시되는 어형에도 주격조사가 통합된 어형으로 제시되는 것은 계림유사 對譯 자료의 특징이다.

(6) ㄱ. 有客曰孫集移室( 손 집 이실), 雪下曰嫩耻(눈 디) 凡下皆曰耻
ㄴ. 飽曰擺咱七加反 飢曰擺咱安理

(7) ㄱ. 面美曰榛翅朝勳(나치 됴ᄒᆞᆫ), 面醜曰榛翅沒朝勳(나치 몯 됴ᄒᆞᆫ)
問物多少曰密翅易成(며치 이셔)
ㄴ. 面曰榛翅(나치), 皮曰渴翅(가치), 木曰南記(남기), 犬曰家稀(가히)
稱我曰能叉台(내), 土曰轄希(ᄒᆞᆯ기)

(6)은 주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6)과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이기문(1968)은 계림유사에는 주격조사가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面曰榛翅(나치)나 皮曰渴翅(가치) 등도 '낯'이나 '갗' 등으로 읽은 바도 있지만, 木曰南記,[13] 土曰轄希 등을 고려한다면 (7)은 주격조사가 통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榛翅'는 'ᄂᆞ치'로 읽을 수 있다. 'ᄂᆞᆺ'(평성, 面)에 주격조사 '-이'가 통합한 것이다. '皮曰渴翅'도 '갗'에 주격조사가 통합한 것이다. 木曰南記도 'ㄱ' 곡용어로서 주격조사가 통합한 어형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7ㄴ)는 語彙對譯資料集 중 계림유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다.

고려시대의 吏讀나 釋讀口訣 등에는 주격조사뿐 아니라 대격, 처격조사 등이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 이 자료에는 대격조사는 나타나지

13) 이기문(1968: 234)에서도 木曰南記(남기)는 주격이 통합한 어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않는다. 격조사의 표기를 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그 당시 한국어에 격조사가 발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려 방언을 채록하고 전사한 사람이 중국인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8) 洗手曰遜時蛇, 飮酒曰酥李麻蛇, 射曰活索, 讀書曰乞鋪, 寫字曰乞核薩

(8)은 대격조사가 나타날 수 있는 자료들인데 나타나지 않는 예이다. (9)는 처격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데 처격조사가 실현된지 않는 예이다.

(9) 有客曰孫集移室 延客入曰屋裏坐少時

'孫集移室'(손 집 이실)은 존재동사 '잇-/이시-'와 관련된 '무엇이'와 '어디에'라는 두 논항이 필요하지만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예이다.

(10)은 호격 조사 '-아'가 반영된 어형이다.

(10) 父呼其子曰了加

大東韻府群玉에는 이것이 "阿加(東人方言父呼其子曰--)"로 나타난다.

## 4. 動詞의 形態論과 語尾

### 4.1 동사의 形態論

계림유사에서 동사의 경우는 부동사형으로 제시되는 것도 있지만 동사의 어간형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은 『朝鮮館譯語』와

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음 (11)이 동사의 어간형으로 제시된 예들이다.

(11) ㄱ. 雪下曰嫩耻(눈 디-) 凡下皆曰耻(디-), 乘馬曰轄打平聲 煖酒曰蘇字打里, 凡安排皆曰打里
染曰沒涕里, 暮曰占榛或言占沒 射曰活字(索), 讀書曰乞鋪
ㄴ. 肥曰鹽骨眞亦曰鹽骨易成[14]

(11ㄱ)은 동사의 어간형이 제시된 것이다. 鷄林類事의 특징이다. 이 시기 즉, 고대국어 시기에는 용언의 어간형이 단독형으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두나 석독구결 등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다. 동사의 어간형이 생산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문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1ㄴ)의 '鹽骨眞'은 동사의 어간과 어간이 통합한 것이다. '肥曰鹽骨眞'은 方鍾鉉(1955)에서 '염글진'으로 해독된 이후 대체로 이를 따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것과 대비되는 '亦曰鹽骨易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승재(1996: 176-181)는 후자의 '亦曰鹽骨易成'에 끌리어 '眞'도 '신'으로 읽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11)과 같은 예들이 계림유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런데 계림유사에는 부동사어미와 통합한 어형으로 제시된 (12)와 같은 예들도 같이 나타난다.

(12) ㄱ. 洗手曰遜時蛇 凡洗濯曰時蛇, 飮酒曰酥字麻蛇 凡飮皆曰麻蛇, 不善飮曰本道安理麻蛇

14) '肥曰鹽骨眞 亦曰鹽骨易成'는 명초본에는 '肥曰骨鹽眞 亦曰鹽骨易成'로 나타나고 오조소설대관 등 다른 자료에서는 '肥曰鹽骨眞 亦曰鹽骨易成'과 같이 바른 어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盜曰婆兒

ㄴ. 肥曰鹽骨眞 亦曰鹽骨易成

(12ㄱ)은 각각 '시서', '마셔', '벗어'(중세국어의 '일벗어') 등으로 해독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亦曰鹽骨易成'의 '易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승재(1996)는 '易成'와 '移室'의 표기 차이에 주목하여 '易成'를 존재동사 '*익신'이나 '*익셔'로 읽을 수 있다고 보고, '*익신'으로 해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창돈(1954: 147)도 이것을 '이신'으로 해독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12ㄴ)의 '亦曰鹽骨易成'을 '염글이신'으로만 읽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이 다른 것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는 예가 (13)이다.

(13) ㄱ. 問物多少曰密翅易成(며치 이셔)

ㄴ. 有曰移實 有客曰孫集移室

의문문에 해당하는 (13ㄱ) "며치 이셔"에도 '易成'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成'이 꼭 '신'을 표기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근거도 없다. 필자는 (12ㄴ)의 '亦曰鹽骨易成'(염글이셔)와 (13ㄱ)의 問物多少曰密翅易成(며치 이셔)에 보이는 '易成'을 각각 '이셔' 정도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ㄴ)의 '亦曰鹽骨易成'(염글이셔)에 보이는 '이셔'는 존재동사 '이시-'의 부동사형이다. (13ㄱ)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다음 (14)는 파생동사의 예이다.

(14) ㄱ. 存曰薩囉　　ㄴ. 亡曰朱幾

'存曰薩囉'와 '亡曰朱幾' 등에 대해 李承旭(1973: 275)에서는 이들을 각각 "사라"와 "주기"로 읽고 어간과 선어말어미가 통합한 어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亡曰朱幾'는 '죽-'에 사동 접사가 통합된 형태가 제시된 것이다. 파생접사 '-이-'가 나타난 것으로 '借物皆曰皮離受勢'를 더 들 수 있다. 借物皆曰皮離受勢의 중국어 '借物皆'에 대응하는 어간 부분인 '皮離-'는 중세국어의 타동사 '빌이-'에 해당한다. 이것을 李承旭(1973: 280)처럼 피동 접사로 볼 필요는 없다. '存曰薩囉'도 파생접사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薩囉'는 중세국어에 남아 있는 '살-'의 사동형 '사ᄅᆞ-'(평평)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4.2. 先語末語尾

李承旭(1973)에서는 계림유사에 많은 선어말어미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 자료에는 몇 개의 선어말어미만 나타난다. 계림유사의 고려방언이 對譯語彙資料集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5)의 坐曰阿則家囉는 '아ᄌᆞ가라' 정도로 읽을 수 있다.

(15) 坐曰阿則家囉

'아ᄌᆞ가라'에 통합된 '-가라'는 중세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 '-거-'와 명령형어미 '-라'가 통합한 '-거라'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11세기말부터 12세기 초에도 명령형 어미구조체 '-거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후술할 명령형어미 부분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明鈔本說郛나 民國板說郛 등에 나타나는 '下簾曰箔恥具囉'는 '발 티고라' 정도로 해독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 우리는 선어말어미 '-고

-'를 확인할 수 있다.

(16) 下簾曰箔恥具囉

明鈔本說郛나 民國板 등에 나타나는 (16)의 '下簾曰箔恥具囉'가 다른 異本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자료라는 사실은 2.1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順治板 說郛에 나타나는 '下 簾箔 耻曰囉'이나 이것을 따른 『五朝小說大觀』의 '下曰簾箔 耻曰囉' 등은 후대에 전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16)의 '箔恥具囉'에서 '箔'은 '발'로 訓讀해야 하는 것이고, '恥'는 音借한 것으로 동사어간 '티-'를 표기한 것이다. '-具囉'는 중세어의 '-고라'에 대응되는 것이다.[15]

(17)의 '去曰匿家入囉'에 대해서는 기존의 설명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7) 去曰匿家入囉

(17)의 '去曰匿家入囉'는 '니가ᄃᆞ라' 정도로 읽을 수 있다. '去'를 풀이한 '匿家入囉'에 나타나는 '入'은 訓假字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入' 字는 일반적으로 차자표기 자료에서 'ᄃᆞ/드'로 쓰이는 글자이다. 여기서도 '入'을 선어말어미 '-ᄃᆞ/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것을 선어말어미 '-ᄃᆞ-'로 해석하면 '匿家入囉'의 '家'를 선어말어미 '-거-'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어 문법사에서 선어말어미 '-거-'와 '-ᄃᆞ-'는 통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匿家入囉'에서 '匿家-'는 '니가-'로 이것은 합성동사이다. 선어말어미 '-ᄃᆞ-' 뒤에 통합된 '-라'는 설명법어미 '-다'의 이형태이다. 선어말어미 '-ᄃᆞ-' 뒤에서

15) 김영욱(1995: 113)에서도 계림유사의 '下簾曰箔恥具囉'의 '-具囉'가 '-고라'에 대응함을 주목한 바 있다.

'-다'가 '-라'로 실현된 것이다. 선어말어미 '-ᄃᆞ/드-'는 15세기 자료에 보이는 '-더-'와 같은 것으로 이것은 향가와 고려시대의 석독구결과 이두 등에서도 나타난다. 고대국어 자료 중에 설명법어미 '-다' 앞에 선어말어미 '-ᄃᆞ-'가 나타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 예가 유일 예이긴 하다.

李承旭(1973: 282-283)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용례로 설명된 "約明日至曰轄烏受勢"나 겸양법의 선어말어미가 통합된 것으로 설명된 "延客入曰屋裏坐少時" 등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대해서는 4.3.2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 4.3. 終結語尾

4.3.1. 李承旭(1973)은 鷄林類事 資料에서 의문법어미와 명령법어미는 확인할 수 있지만 설명법어미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鷄林類事에 동사가 어간형으로 제시되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명법어미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 다음 (18)의 예부터 문제가 된다.

(18) 走曰連音打

'走曰連音打'에 대해서는 異說이 많다. 前間恭作(1925)는 '連音打'를 '打連音'의 오기로 보고 'ᄃᆞᆷ'으로 읽었는 데 필자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誤記說은 따르지 않는 입장이므로 이 주장을 따를 수는 없다. 강신항(1991)은 漢語의 '走'의 뜻에는 "간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년다'로 읽은 바 있다. 진태하(1993)는 이 항목의 앞 뒤에 '行曰欺臨'과 '來曰烏囉', '去曰匿家入囉' 등을 두어 '走曰連音打'와 대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走'를 "行"이나 "去"의 뜻으로는 해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走曰連音打'의 '連音'을 '打'를 連音하라는 표지로 보아 '打打'로 파악하고 '돋다'로 해독한 바 있다. 李丞宰(1996)는 '走曰連音打'를 音借한 것으로 파악하여 '녀놈짜'도 해독하고, 이 '-音打'(-ㅁ다)를 鄕歌나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音叱如'(-ㅁㅅ다), '-音如'(-ㅁ다)나 '-ㅎㄷㅣ'(-ㅁㅅ다), '-ㅎㅣ'(-ㅁ다) 등과 같은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ㅁㅅ다'는 주로 당위성 구문에 사용되는 종결어미구조체이다.

獻乎理音如 (獻花歌 4), 太平恨音叱如 (安民歌 10), 友伊音叱多 (常隨佛學歌 4)

李丞宰(1996)가 '連音打'의 '-音打'(-ㅁ다)를 鄕歌나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音叱如'(-ㅁㅅ다), '-音如'(-ㅁ다)나 '-ㅎㄷㅣ'(-ㅁㅅ다), '-ㅎㅣ'(-ㅁ다)와 같은 것으로 파악한 것은 탁견이다. 하지만 '連'을 音으로 읽기보다는 訓假字로 읽는 것이 의미내용상 자연스러워 보인다. 필자의 주장은 '走曰連音打'에서 '連'은 訓假字로 파악하여 '돋-'(走) 정도로 읽고 여기에 어미구조체 '-音打'가 통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통합된 어형으로 제시된 것이 다소 특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자연스럽다. 여기서 우리는 문장 종결어미 '-다'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음 예가 문제가 되는 예이다.

(19) 寢曰作之(자다), 興曰你之(니다)

李承旭(1973: 274)은 (19)에서 '-之'를 무시하고 이들도 어간형 용례로 분류한 바 있다. 그리고 각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之'의 용례는 이들 두 語項에 나타날 뿐이다. 이에 선행한 '作·你'가 '자·니'로 읽히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한 데도 불구하고 이 '之'가 添加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혹시 誤記라면 '乙'이 아닐까 한다.

(19)의 예들을 표기된 대로 그대로 놓고 해독한다면 '자다'나 '지다' 정도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종결어미 '-之'는 고대 吏讀 자료 등에서 문장 종결어미로 사용된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4.3.2.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鷄林類事에는 다른 문장 종결어미에 비해 명령법어미는 많이 나타난다. 鷄林類事에는 명령법어미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囉(-라)'이고 다른 하나는 '-受勢'와 '-少時'로 나타나는 것이다. 후자는 중세어의 '-쇼셔'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鷄林類事에 나타나는 命令法語尾를 다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 ㄱ. 來曰烏囉 客至曰孫烏囉
ㄴ. 凡呼取物皆曰都囉
ㄷ. 坐曰阿則家囉

(21) ㄱ. 約明日至曰轄載烏受勢 凡約日至皆曰受勢
ㄴ. 語話曰替里受勢
ㄷ. 借物皆曰皮離受勢
ㄹ. 乞物曰念受勢

(22) ㄱ. 延客入曰屋裏坐少時
ㄴ. 相別曰羅戱少時

(20ㄱ)의 '來曰烏囉'와 '客至曰孫烏囉'는 각각 '오라'와 '손 오라' 정

도로 판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 통합되어 있는 '-라'는 문법사적인 지식을 고려하면 명령법어미의 '-라'로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동사 어간 '오-' 뒤에서 '-다'가 '-라'로 실현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중세어에서 보이는 설명법 종결어미 '-다'가 일정한 음운론적인 환경이나 특정의 형태소 뒤에서 '-라'로 변하는 것이 고대국어 단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20ㄴ)의 '凡呼取物皆曰都囉'에서 '都囉'(도라)는 중세어의 '달라'와 대비되는 것이다. 중세어의 '달라'와는 차이를 보인다. (20ㄷ) '坐曰阿則家囉'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ᄌᆞ가라'로 명령법의 어미구조체 '-거라'에 해당하는 것이다.

(21ㄱ)의 '約明日至曰轄載烏受勢'에 대해, 李承旭(1973: 282-283)은 '約明日至曰轄烏受勢'로 잘못 나타난 異本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이것을 '올오소셔'로 해독하고 이 어형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것으로 본 바 있는데 '-쇼셔' 앞에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明鈔本 說郛에 나타나는 '約明日至曰轄載烏受勢'가 정확하고 바른 것이다. 順治板 說郛나 『五朝小說大觀』 등에 나타나는 '約明日至曰轄烏受勢'는 잘못된 것이다. 이 항목의 앞에 나오는 '明日曰轄載'를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轄載烏受勢'는 "明日"을 뜻하는 '轄載'와 동사 '오-'와 중세국어의 '-쇼셔'에 대응하는 '-受勢'가 통합한 것이다. (21ㄴ)의 '語話曰替里受勢'는 각 이본에 따라 표기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明鈔本 說郛 중에도 涵芬樓校印本(1927, 上海)에는 이것이 '語話曰替黑受勢'으로 나타나 홍콩대본이나 順治板 說郛, 『五朝小說大觀』의 '語話曰替里受勢'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前間恭作(1925: 120)은 '語話曰替里受勢'에 대해 'ᄃᆞ리쇼셔'로 읽었고, 劉昌惇(1954: 152)은 '드르쇼셔'로 읽은 바 있다. 그렇게 판독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方鍾鉉(1955)은 未詳으로 처리한 바 있다. (21ㄷ) 借物皆曰皮離受勢(비리쇼셔)는 해독에 별 무리가 없는 항목이다. (21ㄹ) 乞物曰念受勢는 문제

가 되는 항목이다. 前間恭作(1925: 122)은 不明이라고 하면서 '念'이 '주'를 기사한 것인데 誤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劉昌惇(1954: 152)은 '念'이 '怎'의 誤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체로 "주쇼셔" 정도로 읽고 있다.

(22ㄱ) 延客入曰屋裏坐少時 '屋裏 坐少時'를 나누어 읽고 '屋裏 坐-'는 한자가 가지는 뜻 그대로 읽는 것이 즉, 訓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자연스럽다. 金完鎭(1991: 373)은 각주에서 姜信沆(1980)이 '오ᄅᆞ주쇼셔'에 대해 '오ᄅᆞ아ᄌᆞ쇼셔'가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한 바 있다. 즉, 그동안 겸양법 선어말어미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해독해 왔던 '坐'를 훈독한 것이다. 이 관찰은 타당하다. '延客入曰屋裏坐少時'에 대해 方鍾鉉(1955: 202)은 "오리죄쇼시"로 劉昌惇(1954: 151)은 "오ᄅᆞᄉᆞᆸ쇼셔" 정도로 해독한 바 있다. 이 두 해독은 중세어의 겸양법 선어말어미 '-ᄉᆞᆸ-'을 염두에 둔 판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고대국어 단계에서도 '-白-(-ᄉᆞᆷ-)'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어형에 겸양법 선어말어미가 통합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따라서 (22ㄱ)은 '屋裏 坐-'를 그대로 훈독하여 "집 안에 아ᄌᆞ쇼셔"나 "집 안으로 아ᄌᆞ쇼셔" 정도로 해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2ㄴ) 相別曰羅戱少時에 대해 前間恭作(1925: 123)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여희쇼셔"로, 方鍾鉉(1955: 202)은 "라희쇼셔"로 판독한 바 있다. 두 판독을 다 따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羅戱少時'에 대해서 필자는 두 가지 해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羅'를 訓假字 '벌'로 '戱'는 音假字로 읽는 것이다. '羅戱-'(벌히-)가 어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는 '羅戱-'를 그대로 音으로 읽어 '노히-'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로'가 '노'로 두음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21)과 (22)에 나타나는 '-受勢'와 '-少時'는 北宋代의 開封音으로는 거의 같은 음으로 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쇼셔'에 대응

되는 것이다. '-受勢' 또는 '-少時'는 鄕歌나 고려시대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白遣賜立'(숣고시셔), '閼遣只賜立', '知ㅁㅅㅎ立'(알고기시셔) 등에 통합되어 있는 '-시셔'와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중세어의 '-쇼셔'와 대응하는 명령형이 고대 국어에는 '-賜立'(-시셔)나 '-ㅎ立'(-시셔)로 나타난다. '-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이므로 명령형 종결어미는 '-셔'라고 할 수 있다. 명령법어미로 사용되는 終結語尾 '-立'와 '-賜立'에 대해서는 鄭在永(1996)을 참고할 수 있다.

(23) ㄱ. 慕人 有如 白遣賜立(숣고시셔) <願往生歌 8>
ㄴ. 十方叱 佛體 閼遣只賜立 <懺悔業障歌 8>

(24) ㄱ. 時十 或刀 有ナ丨 人刂 來ン氵ホ 王ラ十 白氵 言白ナ尸丁 大王下 當ハ 知ㅁㅅㅎ立(알고기시 셔) <화소10:17-18>
ㄴ. 睡眠し 始七ヲ 寤ム丁丨十丁 當願衆生 一切 智ᄊ 覺ノ尸ム 周七 十方し 願ソヒ立(願ᄒᆞ ᄂᆞ셔) ノヲナ丨 <화엄8:15>

(24)ㄴ)은 釋讀口訣 자료 화엄경에 나타나는 '-ヒ立'(ᄂᆞ셔)이다. 이 자료에는 '-ヒ立(ᄂᆞ셔)'가 동일한 구조의 문장에 수십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명령법으로(또는, 기원이나 바람) 해석할 수 있다. '-ヒ立'는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ヒ-'(-ᄂᆞ-)와 명령법 종결어미 '-立'(-셔)가 통합한 것이다.

4.3.3. 계림유사의 고려방언에는 疑問詞와 疑問法語尾도 나타난다.

(25) ㄱ. 問你汝誰何曰餧箇(누고)
ㄴ. 問物多少曰密翅易成(며치이셔)

(26) 問此何物曰設審

(25ㄱ)의 '餧箇'는[16] 중세국어 설명의문의 '누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25ㄴ)을 의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李承旭(1973: 287)은 '問物多少曰密翅易成'(며치 이셔)에서 존재동사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여'로 파악하고 이것을 의문첨사 '-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대국어에서 감탄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終結吐 '-여'가 주로 동명사어미 '-ㄴ'이나 '-ㄹ', 계사 등과 통합하는 용례만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는 동사 어간에 '-여'가 직접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6)의 '問此何物曰設審'은 前間恭作(1925: 122)부터 '設'이 '沒'의 誤記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方鍾鉉(1955: 202) 등에서도 이를 따라 '므슴' 정도로 읽어왔던 예이다.

## 4.4. 動名詞語尾

古代國語에서 동명사어미는 관형구성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명사적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ㄴ'과 '-ㄹ' 동명사어미는 고대국어에서는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고대국어에서는 '-ㄴ'과 '-ㄹ'이 명사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많다.

계림유사에 나타나는 형용사는 동명사어미 '-ㄴ'이 통합한 어형으로 많이 나타난다. 물론, 현재 전하는 鷄林類事에는 359개 정도의 고려 방언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료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지만 동명사어미 '-ㄴ'과 통합한 용례는 모두 형용사다. 동사의 경우에는 주로 어간형으로 나타나거나 앞에서 살펴본 다른 어미들과 통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명어미'-ㄹ'과 통합한 용례는 한 두 개 정도에 불과하다. 형용사의 경우는 동명사어미 '-ㄴ'과 통합한 용례가 풍

16) 명초본 등에 '餧箇'로 나타나는 것이 오조소설대관 등에는 '[食+婁]箇'로 나타난다.

부함에 비해 동사의 경우 동명사어미와 통합한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자료가 가지는 일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형용사에 동명사어미 '-ㄴ'이 통합한 어형으로 제시된 예이다.

(27) ㄱ. 白曰漢(힌), 黃曰那論(노론)
ㄴ. 老曰刀斤[참고: 少曰亞退]
ㄷ. 小曰胡根(효근)[참고: 大曰黑根]
ㄹ. 深曰及欣(깁흔)[참고: 淺曰眼底]
ㅁ. 高曰那弄(노폰)[참고: 低曰榛則(ᄂᆞ즉)]

(28) ㄱ. 面美曰榛翅朝勳(나치 됴ᄒᆞᆫ)
ㄴ. 面醜曰榛翅沒朝勳(나치 몯 됴ᄒᆞᆫ)

(27)이 단독형에 비해 (28)은 일종의 명사문으로 제시된 것이다. 釋讀口訣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국어에는 이런 유형의 명사문이 많이 쓰였다.

(29)는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 구성에 나타나는 '-ㄴ'의 용례이다.

(29) ㄱ. 熟水曰泥根沒(니근 믈), 冷水曰時根沒(시근 믈)
ㄴ. 白米曰漢菩薩(힌 ᄡᆞᆯ[ᄇᆞ술])[참고: 粟曰田菩薩]
ㄷ. 金曰那論義(노론 쇠) 銀曰漢歲(힌 쇠) 鐵曰歲

(29ㄱ)은 해독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각각 '니근 믈'이나 '시근 믈'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29ㄴ)의 '白米曰漢菩薩'도 '힌 ᄡᆞᆯ[ᄇᆞ술]' 정도로 읽을 수 있다. 바로 이어서 제시되는 '粟曰田菩薩'이 재미있는 예이다. (29ㄷ)의 '金曰那論義'에서 '義'는 誤字로 보는 것이 좋다. '銀曰漢歲'와 '鐵曰歲' 등을 고려하면 '金曰那論義'의 '義'는 '歲'의 誤字일

가능성이 높다.

鷄林類事에는 동명사어미 '-ㄹ'의 용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동명사어미 '-ㄹ'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0) ㄱ. 有曰移實, 無曰不烏實
ㄴ. 有客曰孫集移室

李承旭(1973: 273-275)은 '有曰移實'과 '無曰不烏實'를 각각 '이시-'와 '어브시-'로 읽어 용언의 어간형으로 파악한 바 있다. '有客曰孫集移室'도 '有客曰孫集移室延'으로 잘못된 이본 자료를 근거로 하여 李承旭(1973: 275)에서는 이것도 "손 집 이시어"로 읽고 어간과 선어말어미가 통합한 어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30ㄱ)은 각각 '이실'과 '*어브실'로 해독할 수 있고, (30ㄴ)도 '손 집 이실'로 해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에는 동명사어미 '-ㄹ'이 통합되어 있다.

## 5. 否定構文 및 기타

다음 예들은 鷄林類事에 나타나는 부정 구문이다. 부정부사 '安理'와 '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중세어의 '아니'와 '몯'에 대응되는 것이다.

(31) ㄱ. 瘦曰安里鹽骨眞[참고: 肥曰骨鹽眞 亦曰鹽骨易成]
ㄴ. 不善飮曰本道安理麻蛇
ㄷ. 飢曰擺咱安理(배 ᄎᆞ 아니)[참고: 飽曰擺咱七加反]

(32) 面醜曰楑翅沒朝勳(나치 몯 됴호)[참고: 面美曰楑翅朝勳(나치 됴호)]

(31)은 '安理'가 용언의 앞 뒤에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1ㄷ)의 '飢曰擺咱安理'(배 ᄎᆞ 아니)는 그동안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이다. (32)의 '面醜曰楑翅沒朝勳'(나치 몯 됴호)은 '楑翅 沒 朝勳'으로 분석하고 '沒'을 부정부사 '몯'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하지만, '몯' 부정 구문은 鄕歌나 吏讀와 석독구결 등에서는 볼 수 없는 구문이다. '楑翅 沒 朝勳'에서의 부정부사 '沒'은 중세어의 용법과 같은 것이다. 10세기 이전의 다른 借字表記資料나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이나 이두 등에 나타나지 않는 부정 구문의 유형이 鷄林類事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국어문법사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통시적인 언어 연구를 하는 우리들로서는 꾸준하게 자료를 발굴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凡事之畢皆曰得'에서 '得'은 k 入聲韻尾인 어말자음이 소리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중세어의 부사 '다'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독하면 자연스럽다. '勸客飮盡食曰打馬此'에서도 부사 '다'를 확인할 수 있다.

## 6. 結論

鷄林類事는 12세기 초에 北宋의 孫穆이 高麗의 단어와 어구를 채록하여 만든 對譯語 자료이다. 따라서 계림유사의 고려방언은 고려시대 국어의 音韻 연구뿐 아니라 12세기 초 중국(북송)의 音韻史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鷄林類事의 고려방언 가운데 漢字로 對譯表記한 풀이항 중에는 단순하게 中國의 漢字音만으로는 해독할 수 없는 자료도 있다는 것이다. 對譯表記된 高

麗方言 중에는 11세기 말이나 12세기 초에 고려에서 사용하던 文字言語 자료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는 漢字語뿐만 아니라 당시의 借字表記도 반영되어 있다. 각 異本들마다 한자 표기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鷄林類事에 나타나는 高麗方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異本 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을 정확하게 밝혀 기술할 필요가 있다. 북송대의 한자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려시대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서 鷄林類事 高麗方言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鷄林類事의 고려 방언에 나타나는 문법형태들을 동 시대의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살피는 과정에서 이 자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알 수 있었다. 鷄林類事가 가지는 이런 특징들은 국어문법사뿐만 아니라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의 작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鷄林類事의 고려방언은 대부분이 어휘 자료이고, 어구나 문장 단위의 자료도 있다. 특히, 단어로 제시되는 어형 중에는 '木曰南記(남기)', '犬曰家稀(가히)', '土曰轄希(홀기)' 등과 같이 주격조사가 통합된 어형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 자료에는 대격조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호격 조사 '-아'가 반영된 어형은 나타난다. 동사의 경우는 부동사형으로 제시되는 것도 있지만 동사의 어간형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은 『朝鮮館譯語』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고대국어 시기에는 용언의 어간형이 단독형으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두나 석독구결 등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동사의 어간형이 생산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문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자료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로는 '-거-'에 대응되는 '-가-'와 '-고-', '-ᄃᆞ-' 등을 들 수 있다. '坐曰阿則家囉(아즈가라)'에서 나타나는 '-가라'는 '-거라'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11세기말부터 12세기 초에도 명령형 어미구조체 '-거라'를 확인할 수 있다. '下簾曰箔

耻具囉'는 '발 티고라' 정도로 해독할 수 있는데 이 '-고라'는 중세어에 '-고라'에 대응되는 것이다. '去曰匿家入囉(니가ᄃᆞ라)'에 통합되어 있는 '入'은 訓假字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入' 字는 일반적으로 차자 표기 자료에서 'ᄃᆞ/드'로 쓰이는 글자이다. 이 '入'은 선어말어미 '-ᄃᆞ/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문장 종결어미로는 명령법어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설명법어미도 나타난다. '走曰連音打'에는 어미구조체 '-音打'가 통합한 것이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구조체 '-ㅁㅅ다'가 통합된 어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자연스럽다. 鷄林類事에는 명령법어미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囉(-라)'이고 다른 하나는 '-受勢'와 '-少時'로 나타나는 것이다. '-受勢'와 '-少時'는 北宋代의 開封音으로는 거의 같은 음으로 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쇼셔'에 대응되는 것이다. '-受勢' 또는 '-少時'는 鄕歌나 고려시대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賜立'(-시셔), '-ᄉᆞᅀᅩ'(-시셔)와 통할 수 있는 것이다. 향가나 석독구결에는 '-賜立'(-시셔)나 '-ᄉᆞᅀᅩ'(-시셔)만 나타난다. 계림유사의 고려방언에는 疑問詞와 疑問法語尾도 나타난다. '-ㄴ'과 '-ㄹ' 동명사어미는 고대국어에서는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고대국어에는 '-ㄴ'과 '-ㄹ'이 명사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많다. 계림유사에 나타나는 형용사는 동명사어미 '-ㄴ'이 통합한 어형으로 많이 나타난다. 동사의 경우에는 주로 어간형으로 나타나거나 앞에서 살펴본 다른 어미들과 통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명어미'-ㄹ'과 통합한 용례는 한 두 개 정도에 불과하다. 형용사의 경우는 동명사어미 '-ㄴ'과 통합한 용례가 풍부함에 비해 동사의 경우 동명사어미와 통합한 용례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자료가 가지는 일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에 동명사어미 '-ㄴ'이 통합한 어형으로 제시된 예 중 '面美曰楼翅朝勳'(나치 됴ᄒᆞᆫ)이나 '面醜曰楼翅沒朝勳'(나치 몯 됴ᄒᆞᆫ) 등은 일종의 명사문으로 제시된 것이다. 釋讀口訣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국어에는 이

런 유형의 명사문이 많이 쓰였다. 부정 구문에서는 부정부사 '安理'와 '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중세어의 '아니'와 '몯'에 대응되는 것이다. '安理'는 용언의 앞 뒤에 오는 용례가 나타난다. 특히, '飢曰擺咱安理'(배 ᄎᆞ 아니)는 그동안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이다. '面醜曰榇翅沒朝勳'(나치 몯 됴ᄒᆞᆫ)은 '榇翅 沒 朝勳'으로 분석하고 '沒'을 부정부사 '몯'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하지만, '몯' 부정 구문은 鄕歌나 吏讀와 석독구결 등에서는 볼 수 없는 구문이다. '榇翅 沒 朝勳'에서의 부정부사 '沒'은 중세어의 용법과 같은 것이다. 향가나 이두, 석독구결 등에 나타나지 않는 문법 형태나 부정 구문의 유형이 鷄林類事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국어 문법사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姜吉云(1986), 鷄林類事小攷, 畿甸語文學 제1집.
姜信沆(1980), 『鷄林類事 高麗方言 硏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_____(1995), 『朝鮮館譯語 硏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姜憲圭(1994), 계림유사의 '男兒'와 '女兒'의 二重記述에 대하여, 『우리말 연구의 샘터』, 연산 도수희선생화갑기념논총, pp.558-572.
高柄翊(1958), 鷄林類事의 編纂年代, 『歷史學報』 10, pp.115-125
權仁瀚(1991), 麗代 聲調의 再構를 위한 基礎的 硏究, 『國語學』 21, pp.209-233.
權在善(1975), 麗代 親族 및 男女呼稱語에 대한 考察,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韓國語文學大系 II, 螢雪出版社
김영욱(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金完鎭(1983), 계림유사와 음절말자음, 『國語學』 12, pp.35-46.
_____(1991), 國語史 資料로서의 鷄林類事의 性格, 『진단학보』 71·72, pp.373-381.
金喆憲(1962), 鷄林類事硏究, 『국어국문학』 25, pp.101-125.
文璇奎(1960),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의 'l(ㄹ)' 表記法考案, 『국어국문학』 22

호, pp.46-49.
_____(1961), 鷄林類事片攷 -特히 '-l(ㄹ)' 表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3호, pp.7-20.
朴炳采(1973), 『古代國語의 硏究』, 고려대 출판부.
朴喜淑(1988), 鷄林類事 高麗方言의 '婆記'와 '曹兒'에 대하여, 『李應百先生 停年退任紀念論叢』, 서울대 국어교육과.
方鍾鉉(1955), 鷄林類事硏究, 『東方學志』 2집, pp.1-205.
서재극(1988), 계림유사의 몇 낱말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15,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_____(1990), '女兒' 亦曰 '古召育曹兒', 國語學論文集(姜信沆敎授回甲紀念).
안병호(1985), 『계림류사와 고려시기 조선어』,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劉昌惇(1954), 鷄林類事補敲, 『崔鉉培先生還甲紀念論文集』, pp.129-155.
李基文(1956), 鷄林類事의 一考察, 一石李熙昇先生頌壽記念論叢, pp.393-407.
_____(1968), 鷄林類事의 再檢討 -주로 音韻史의 觀点에서-, 『東亞文化』 8, pp.205-248.
李承旭(1973), 鷄林類事의 文法資料, 『國語文法體系의 史的硏究』 所收, 一潮閣, pp.266-296.
李丞宰(1996), 鷄林類事와 借字表記 資料의 關係, 『大東文化硏究』 30집, pp.159-184.
任洪彬(1995), 鷄林類事 '刀斤'의 읽기에 대하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鄭在永(1995), 前期中世國語의 疑問法, 『國語學』 25집, pp.221-265.
_____(1996), 終結語尾 '-立'에 대하여, 『震檀學報』 제81호, pp.195-214.
_____(1997a), 고려시대 釋讀口訣, 『문헌과해석』 통권1호, pp.162-174.
_____(1997b), '-오-'의 변화, 『國語史 硏究』, 태학사, pp.601-643.
_____(2000a),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ᄂᆞ-'와 그 변화, 『형태론』 2권1호, 박이정, pp.73-106.
_____(2000b),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연구, 『문헌과해석』 통권 12호, 문헌과해석사, pp.196-214.
_____(2001a), 禮敬諸佛歌 해석,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pp.337-352.
_____(2001b), 國語 感歎文의 變化 -감탄법 종결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제92호, pp.293-325.
_____(2003), 百濟의 文字生活, 『口訣硏究』 第11輯, pp.87-124.
陳泰夏(1974), 『鷄林類事 硏究』, 塔出版社.
_____(1982), 鷄林類事의 誤寫·誤譯·未解讀 語彙考, 『東方學志』 34, pp.43-96.
_____(1993), '打'字의 音韻 變遷考-鷄林類事를 중심으로-, 『韓中音韻學論叢』 1, 서광학술자료사.
崔文吉(1989), 鷄林類事未解讀語彙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前間恭作(1925), 鷄林類事麗言攷, 東洋文庫論叢 제3집.
河野六郎(1968/79), 朝鮮漢字音硏究, 『河野六郎著作集』 2, 平凡社.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11-8〕
E-mail: cjyoung@kut.ac.kr
접수일자: 2003. 12. 17.
게재일정: 2004. 01. 16.

# On Grammatical Morphemes in <Goryeo Bangeon(高麗方言)> of *Jilin leishi*(鷄林類事)

Chung, Jae Young

This paper aims at surveying grammatical morphemes which appear in <Goryeo Bangeon(高麗方言)> of *Jilin leishi*(鷄林類事). *Jilin leishi* contains many lexical or grammatical morphemes which do not appear in Hyangga(鄕歌), Idu(吏讀) or Seokdok Kugyol(釋讀口訣). In order to extract grammatical morphemes correctly, I examine various versions of *Jilin leishi* and features of the writing scheme of <Goryeo Bangeon> firstly.

This material contains many nouns, both Korean and Sino-Korean. Among these are derived nouns, compound nouns and nouns which show special alternation involving /g/ or /h/. Unlike other biligual glossaries, this material contains several inflected noun forms involving nominative case marker, e.g. '木曰南記(namgi)', '犬曰家稀(gahi)', '土曰轄希(hʌlgi)', and vocative case marker '-a', but no accusative case maker. Verbs are presented as isolated forms or converbal forms, which is different from *Joseongwan Yeokeo*(朝鮮館譯語). Imperative endings appearing in this material is of two types, one written as '-囉(-ra)' and the other as '-受勢' or '-少時', which is supposed to be '-syosyeo' in

Middle Korean. The verbal noun endings '-n' and '-l' appear many times in this material. Adjectives often appear with the verbal noun ending '-n' attached, among which there are cases which can be regarded as nominal clauses. Negative adverbs '安理' and '沒' are found, which correspond respectively to 'ᄋᆞ니' and 'ᄆᆞᆫ' in Middle Korean. '安理' can be positioned before or after a verb. The latter case, exemplified in '飢曰 擺咱安理(bʌy čʌ ani)', can not be seen in other materials. The negative adverb '沒(mot)', exemplified in '面醜曰 榰翅 沒 朝勳(nʌči mot dyohʌn)', is not attested in Hyangga, Idu or Seokdok Kugyol. In that it contains data not attested in other materials, *Jilin leishi* is an important material in Korean historical grammar. It is also unique in that it was written by a foreigner, although some examples are presumed to reflect orthographic tradition in Korea.

*Key words: *Jilin leishi*(鷄林類事), Ancient Korean, grammatical morpheme, Chinese-borrowing writing system, different editions of *Jilin leishi*